



인디헤나의 전통문양이 새겨진 산 후안 차물라(San Juan Chamula)의 교회 담장과 인디헤나 전통복장을 입고 있는 차물라 마을의 청년들

해 외 문 예

멕시코의 문화와 예술

과거와 역사가 현존하는 곳 로스 알토스 고원지대 인디헤나 마을의 문화와 예술

글 우연 공연기획자 · 세계무용축제 SIDance 2001 기획실장

색동앵무새 과카마야의 전설과 치아빠스

색동앵무새 과카마야 한 마리를 가리키며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말한다. “저길 보게나.” “한 마리의 새가 저렇게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군요.” “예전에 색동앵무새는 저렇게 화려하지 않았다네. 온통 잿빛투성이였지. 신들은 대책을 논의하여 좀더 다채로운 색깔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

았다네. 그래서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다른 생각들이 생겨났다네. 이제 신들은 그 색깔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라져버리지 않게 하려고 잘 간수할 방법을 찾았다네. 이때 과카마야를 보았지. 신들은 그 새를 잡아 새의 몸에 색깔들을 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색동앵무새 과카마야가 색깔을 갖게 되었고, 세상 곳곳을 날아다니게 되었다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색깔들이 다채롭다’는 것과 ‘생각들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잊

지 않고 모든 색깔들과 모든 생각들이 적절한 곳을 찾으면 세상이 평화롭고 살 만한 곳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말일세.”¹⁾

멕시코의 최남단, 치아빠스(Chiapas)로 향하는 18시간의 곤혹스러운 산악버스 여정 속에서 나는 이 땅 위를 날아다닌다는 색동앵무새 과카마야(Guacamaya)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 때문일까. 치아빠스는 과연 다채로운 색깔들과 생각들을 품고 있는 사람과 자연의 땅이다. 멕시코에서 여덟번째로 큰 주로 7만 5,000m²가 넘는 치아빠스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두 나라를 합쳐놓은 면적을 지닌다. 과테말라와의 자연적인 국경선인 리오 우수마신따, 200km가 넘는 태평양 연안 해안, 해발 3,000m에 이르는 산악 고원지대, 라칸돈 정글에 이르기까지 강과 바다, 고원과 정글이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자연지형을 보여준다.

이 풍요로운 자연 속에는 울창한 번식력으로 자라나는 식물, 동물군들과 함께 다양한 색깔과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간다. 멕시코에서 가장 많은 인디헤나가 살고 있는 곳. 일반적으로 치아빠스 주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스페인어와 함께 출(Chol), 출(Chul), 라칸돈(Lacandón), 맘(Mam), 토홀라발(Tojolabal), 첼탈(Tzeltal), 초칠(Tzotzil), 소케(Zoque) 등 총 9개의 언어로, 모두 고대 마야의 언어에서 파생된 언어지만 서로 소통되지 못하는 언어들이 함께 공존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각각의 원주민 부족들은 팰레게와 약스칠란과 같은 웅장한 고대 마야 도시들을 세운 건축자들의 후손들로서 서로 다른 관습과 문화를 고수하며 여전히 치아빠스의 밀림과 고원지대에 흩어져 군락을 이루고 산다.

따라서 치아빠스에는 다양한 시간대가 공존한다. 도무지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깊숙한 산자락에까지 내걸

린 대형 코카콜라 입간판 밑으로 원주민 처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간다. 정지된 현재를 배경삼아 걸어다니는 과거의 시간대다. 시공간을 넘나들며 여행객들의 핸드폰이 울리는 와중에도 우화 같은 전설과 민담에 기댄 이들 원주민 사회의 신앙은 여전히 고대문명의 지속형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스페인 정복 이후의 문화와 결합된 혼합형으로 존재하기도 하며, 이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지탱하는 문화로 공존하고 있다.

역사란 과학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의 계산법으로 진행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를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란 사람들 마음속에 꿈꾸듯 자리하고 있는 이러한 미지의 시간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이렇게 색동앵무새 과카마야의 전설처럼, 자연과 사람과 언어와 시간대가 다채로운 치아빠스의 색깔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곳은 로스 알토스(Los Altos) 고원지대에 자리하고, 산 크리스토팔 데 라스 카사스(San Cristóbal de Las Casas)를 중심으로 한 크고 작은 인디헤나의 마을들이다.

수미데로 계곡의 인디헤나 전설과 마리아 부인의 가톨릭 신앙

치아빠스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오는 오래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16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맞서 수미데로 계곡에 몸을 던진 치아빠네까족 원주민들의 집단자살 이야기다. 오늘날 치아빠스에 해당하는 지역을 스페인인들이 정복할 당시, 이들은 여러 마야 원주민 마을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중 치아빠네까족은 6세기부터 지금의 그리할바 강이라 불리는 치아빠 강의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족으로 이들이 바로 이 계곡에서 벌어진 영웅적인 전투의 주인공들이었다. 에르난 코르테스의 명령에 따라 1528년에 치아빠스에 도착한 디에고 데

1) 『마르쿠스와 인토니오 할아버지』, 다빈치출판사.

2) 『Arqueología Mexicana』, JUNIO-JULIO 1994 VOL. II-NUM. 8.

마사리에고스 제독의 지휘하에 정복자들은 이 부족을 정복하기 위해 압도적인 전사의 숫자와 무장으로 공격해 왔다. 이때 치아빠네까족의 주 도시는 까논 델 수미데로 계곡의 근처에 있었다. 바로 이곳에서 마지막이자 기념비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치아빠네까족이 완전히 패배했을 때 이들은 모두 몸을 던졌다. 절벽 꼭대기에서 아래로 뛰어들었고, 강물로 떨어졌다. 강물을 붉게 물들이면서 통치에 굴복하는 것보다 스스로 죽는 것을 택하면서.²⁾

치아빠스 남부 그리할바 강(Rio Grijalva)의 오른쪽에 위치한 치아빠 데 코르소(Chiapa de Corzo). 스페인 정복 당시 전 부족이 수미데로 계곡에 몸을 던져 죽어갔다는 전설을 지닌 마을이다. 이 전설 속의 생존자들이 강 저 지대로 옮겨 새롭게 건설한 마을이 치아빠 데 로스 인디오스(Chiapa de Los Indios)로 이 마을의 옛 이름이다.

이 마을의 로스 알토스 고원지방과 침식된 중앙분지가 만나는 지점에 바로 이 전설의 계곡이 존재한다.

1,200m에 달하는 깎아지른 절벽과 절벽 밑으로 급류인 그리할바 강이 흐르는 까논 델 수미데로(Cañon del Sumidero) 계곡. 나는 지금 이 계곡에 흐르는 강물을 타고 가며 절벽 위에서 나뭇잎처럼 떨어져 내렸을 인디헤나들의 모습을 상상한다. 말을 타고 대포를 쏘는 정복자들을 향해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며 용맹스럽게 싸웠을, 치아빠네까족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원주민 조상의 절망적인 몰락과 죽음의 터에 살고 있는 오늘의 이 땅의 사람들은 새까만 얼굴로 치아빠네까족의 역사를 심각하게 추억하지는 않는다. 되려 그들 스스로 고대 마야 부족들 사이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부족이었던 치아빠네까족이 되어 이 전설의 계곡으로 몰려들곤 한다. 매년 1월 20일, 성 세바스티안 축제가 되면 이들은 과거의 기념비적인 전투를 재현한다. 그리할바 강줄기를 따라 양 계곡에서 쏘아 올리는 불꽃놀이만 마치 수증전투를 연상시킨다. 강물 위에 띄워진 거룻배들은 색색의 등불로 밝혀지며, 이 배에서 쏘아 올리는 색



왼쪽 치아빠 데 코르소의 전통춤 빠라치코스

오른쪽 도자기를 팔고 있는 시나칸탄의 인디헤나 여인과 필자

색의 축포들로 수미데로 계곡의 전투는 소생한다. 결국 수미데로 계곡의 전설이 이들에게 가치를 갖는 것은 원주민 부족 몰락의 역사가 아니라 굴복보다는 자유를 선택했던 고대인들의 용기이고, 그 용기가 주는 생의 활력이다.

이것이 슬픈 전설이 축제가 되는 이유다. 죽음의 계곡이 축제의 장소가 되는 이유다.

수미데로 계곡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의 절정은 다시 이 강줄기를 타며 진행되는 빠라치꼬스(Parachicos)라는 춤으로 고조된다. 병색 짙은 스페인 사람을 연상시키는 마스크라를 쓴 한 떼의 남자들(parachicos)이 원색의 뽀충을 휘두르며 등장한다.

화려한 원색 자수 의상에 툴(tul, 항아리)을 든 여인들(chiapanecas)이 합세하면 역동적인 싸빠떼아도(Zapateado, 텡 댄스처럼 발동작으로 리듬을 내는 형태)가 시작된다. 이들은 고대 부족들처럼 춤이 바뀔 때마다 입장단으로 구음을 외치고, 사람들은 소나하(Sonaja)라는 전통악기를 흔들며 함께 박자를 맞춘다. 이들은 또 누구인가? 창백한 마스크라를 쓴 저 남자들은 누구인가?

치아빠스에 마리아 데 앙굴로(Maria de Angulo)라는 귀족 부인이 살았다. 매우 아픈 아들을 둔 그녀는 이 마을의 수호 성인(聖人)인 성 세바스티안에게 찾아가 아들을 낫게 해준다면 재산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그후 그녀는 아픈 아들을 성 세바스티안의 목각과 함께 묶어 이 마을을 순회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었더니 그의 아들은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이 일로 그녀는 성 세바스티안에게 감사하며 매년 이 수호 성인을 기리는 축제를 후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어린 청년(chico)들을 위한 춤을 만드니, 이 춤은 '어린 청년(chicos)들을 위하여(para)' 라는 뜻의 빠라치꼬스(Parachicos)라

불리게 되었다.³⁾

수미데로 계곡에서 치아빠네까족이 몰락했듯 대부분 원주민 사회가 정복지가 되어버린 이후에 이들의 문화는 격변의 과정을 겪게 된다. 특히 고대 원주민 사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춤의 경우, 스페인 정복 이후 멕시코 땅에 복음을 전파하려 했던 가톨릭 사제들이 이교도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말살시키려고 하여 큰 반발을 사고 말았다.

결국 가톨릭 사제들은 원주민 사회의 춤을 인정하고, 이 춤의 바탕 위에 가톨릭의 의미를 가미하는 혼성적인 형태의 사역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스페인인의 얼굴을 한 빠라치꼬스도, 귀족 부인인 마리아 부인도, 성 세바스티안도 이때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에 해당할 것이다. 즉 빠라치꼬스는 가톨릭 문화와 결합하는 고대 원주민 문화의 변화과정 속에서 태동한 춤이다.

이 과정 속에서 재치 있는 상상력의 소유자이자 창의적인 발명자들이었던 멕시코의 인디헤나 부족들은 원주민 사회의 고유한 문화와 새로운 믿음으로 이식된 가톨릭 신앙을 잘 버무려 결합하는 기발한 창조력을 발휘하게 된다.

치아빠 데 꼬르소의 이 전통적인 축제 속에서도 나는 이들 인디헤나들의 기발한 창의력을 발견한다. 로마 병사 출신의 청년 성인 성 세바스티안의 날에, 원주민 청년 병사들이 자유를 위해 뛰어내렸던 그곳 수미데로의 계곡에서, 아픈 아들을 구한 마리아 부인의 전설을 담은 어린 청년들을 위한 춤 빠라치꼬스를 행한다는, 아주 잘 짜여진 결합이라니!

웃감 위에 마야의 전통을 새기는 인디헤나 여인들

“세상이 창조되던 시절에 우리들의 최초의 어머니, 뿌리메라

3) <http://www.folklorico.com/danzas>.

마드레(Primera Madre)는 성인(聖人, Santo)들로부터 옷감을 직조하는 법, 옷감 위에 지수를 놓는 법을 배웠다네.”⁴⁾

전통적인 고대 마야 시대 직물자수 문화가 스페인 정복 이후 이식된 가톨릭 신앙과 결합되어 마치 새로운 직물신앙, 혹은 자수신앙을 만들어놓은 듯 보이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로스 알토스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훌륭한 직조공들, 능숙한 직물자수 아티스트들인 인디헤나 여인들 사이에 전해진다.

실제로 초칠족, 첼팔족 등 각기 다른 마을의 인디헤나들이 모여드는 고원지대의 중심도시인 산 크리스토폴 데 라스 까사스(San Cristóbal de Las Casas)의 거리나 시장에는 이들이 생산한 형형색색의 직물자수 공예품들로 넘쳐나고, 거리를 활보하는 이들의 우이필(원주민 여자들이 입는 통치마 형식의 블라우스), 찰(원주민 여자들이 걸은 개념으로 걸치는 망토), 뽀초(남자들의 걸옷) 등의 의상에 새겨진 직물자수 문양들은 각 마을마다 서로 달라서 그 무늬와 색깔만으로도 어느 동네 출신인지 가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다른 인디헤나 마을의 의상들은 단지 마을 사람들끼리 통일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맞춰 입은 교복 개념의 유니폼이 아니다. 이 자수문양은 각 마을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저 먼 고대 마야인들이 정립해 놓은 세계관과 철학을 상징한다. 일례로 꽃의 생산지로 알려진 시나칸탄(Zinacantán) 사람들은 은색, 금색의 자수실을 사용하여 생산과 교역의 상징인 화려한 꽃무늬 자수가 새겨진 의상을 입는다. 직물자수 공예로 가장 잘 알려진 산 안드레스 라라인사르(San Andrés Larraínzar) 마을의 여인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마름모 형태의 장식 모티브를 즐겨 쓰는데, 이는 한 마리의 나비를 형상화하며, 태양과 고대 마야인들의 우주관인

사각의 우주를 상징한다.

동일한 디자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수직으로 그어진 3개의 선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pueblo)을 상징한다. 또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비 굻는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인지 마야 신화 속에서 나오는 세번째 세상을 종결한 홍수로 해석되기도 하고, 체넬오(Chenelho)라는 마을에서는 숲으로, 산 안드레스 지방에서는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마야 신화의 일부이자 성경과 관련을 둔 비유들이다.

저 먼 고대 마야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원색으로 줄지어 늘어선 자수문양을 바라보고 있자니 나는 그 가늠할 수 없는 긴 시간대로 아득하다. 스페인 정복 이후 고대 마야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이들이 건설한 유적들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채 관광객들만을 맞아온 지 오래인데, 어떻게 이 여인들은 여전히 마야의 세계를 옷감 위에 새기고 있는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그녀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가톨릭과 융합된 직물신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로스 알토스 고원지대에 자리한 인디헤나 마을의 교회에 들어서면 토착 종교와 가톨릭이 융합된 기묘한 분위기와 함께 각 마을의 원주민 복장을 한 가톨릭의 성인(聖人)들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은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에 최초의 어머니에게 옷감을 직조하고 자수를 놓는 법을 가르쳐준 성인들을 위해 원주민들이 헌사로 바친 선물이다. 이 성인들의 의상은 100년이 넘도록 유지되는데 매년 인디헤나 여인들은 이 의상을 빨고 세탁하며 옷에 새겨진 직물문양들을 살펴본다. 이것은 고대인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마야 문양의 전통을 잊지 않기 위함이고, 그네들만의 직물자수 문화의 전수방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올 한올 느리게 짜여지는 옷감과 함께 더딘 과거의

4) 『Arqueología Mexicana』, JUNIO-JULIO 1994 VOL. II-NUM. 8/Textile De Chiapas.

시간대를 살고 있는 인디헤나 여인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초칠족 마을 '시나칸판'이다. 이 마을 여인들은 나무 밑에서, 혹은 처마 밑에서 기둥과 허리 사이에 베틀형 직조기구(텔라르 데 쉐뜨라, Telar de Cintura)를 고정시킨 채 분주한 손놀림으로 옷감 위의 세상을, 세상 속에 내놓을 또 다른 색깔을 창조한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획일화되거나 동일한 문양의 창조물들을 생산하지 않는다. 언뜻 비슷한 문양으로 보일지라도 각각의 문양은 마치 작가의 서명처럼, 만든 이들에 따라 각기 다른 독특한 디자인을 지니게 된다. 이 또한 인디헤나 여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믿음 때문이다. 신이 처음 마야인들을 창조하고, 세상을 처음 창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었듯이 그녀들은 자신들도 이 문양들 속에 자신들 각자가 소망하는 세계, 앞으로 존재해야 할 세계를 저마다 스스로 창조해 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무지 우화 같게만 들리는 이 원주민들의 신앙, 이들의 믿음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어쩌면 이것이 이 과거의 시간대를 살고 있는 인디헤나 여인들을 가장 창의적인 예술인들로 키워가고 있는 힘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우화처럼 가늠할 수 없는 미지의 시간 속에 존재하던 문화들을 오늘에까지 연장시켜 주고 있는 바로 그 힘인지도 모른다.

신(神)은 옥수수로 인간을 빚었고, 인간은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는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후에 신들은 길짐승, 날짐승, 파충류를 만들었다. 그러나 동물들은 신들을 섬길 줄 몰랐다. 다시 신들은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한다. 처음에는 진흙으로 빚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성이 없고, 경건함도 없었으며, 창조자를 섬

길 줄도 몰랐다. 신들은 다시 나무로 인간을 만든다. 나무인간은 인간의 외양을 갖추었지만 심장이 없었고, 여전히 지성이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신은 옥수수 반죽으로 살을, 옥수수 음료로 피를 만들어 인간을 만들었다.⁵⁾

마야 문명의 일원인 끼체족 후예들이 라틴 문자로 기록한 신화와 역사에 관한 책, 마야인들의 성경이라 여겨지는 「뽀뽀-부」의 천지창조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옥수수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고 있는 신(神)의 선물, 옥수수에 대한 이 땅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은 옥수수로 인하여 원기를 회복하고 뜨거운 피가 흐르는 감성을 갖게 되었다고 믿는다.

이제 과거의 신들이 옥수수 반죽으로 인간을 창조했듯이 옥수수로 만들어진 인간은 과거의 신들이 인간을 만들다 실패했던 재료, 진흙을 이용하여 새로운 창조물들을 생산한다.

아마테낭고 델 바예(Amatenango del Valle). 산 꼬리스토팔 데 라스 까사스로부터 37km 떨어져 있는 초칠족 마을. 이 마을의 여인들은 어른과 아이 구분 없이 모두가 훌륭한 도공들이다. 더불어 먼 스페인 정복 이전 시대의 도예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이수자들이기도 하다.

옥세빠(Ocxepa). 서툰 스페인어와 초칠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 여인은 50여 년간 도자기를 빚어온 검고 주름진 손으로 이 마을에 전수되고 있는 도자기 기술을 보여준다.

아마테낭고 델 바예의 도자기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물레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인은 마당에 쌓인 회색빛 바로(진흙, barro)를 한 점 뚝 뜯어내고, 그 위에 체로 거른 아레나(모래, arena)를 섞어 진흙 반죽을 만든다. 나무 작업판 위에 모래를 뿌린 후 단지 양손으

5) 「뽀뽀-부(Popol Vuh)」, 마야문명의 일원인 끼체족 후예들이 라틴 문자로 기록한 신화와 역사에 관한 책.

로 반죽을 빙빙 돌리기만 하는데, 그 기술은 인간의 손이 회전 물레를 대신한다. 그녀가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소박하다. 공기나 향아리, 재떨이, 연필꽂이와 같은 삶의 기구들이거나, 빠또(오리, pato), 아르마디요(돼지처럼 생긴 남미의 갑옷쥐, armadillo), 빨로미따(비둘기, palomita)와 같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과 친숙한 동물들이다.

아니말리또(animalito)라 불리는 이 동물상들은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징적인 도예품이기도 하다.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들은 흙에서 채취한 염료로 색



마을 여인들이 모두 훌륭한 도공인 아마떼낭고 델 바예의 초칠족 여인이 손으로 직접 도자기를 빚고 있다

깔이 입혀진다. 따라서 회색빛 토기, 황토빛 토기로 양분되며 다른 지역의 도자기들처럼 화려한 컬러나 문양이 새겨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마을의 도자기들은 화덕, 즉 불가마에 구워지지 않는다. 가마가 따로 없이 노천에 쌓인 나무 장작불에 의해 구워지게 되면 이 도자기들은 세상에 나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생명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이 대대손손 전수하고 있는, 스페인 정복 이전부터 내려오는 도자기 기술이다. 진흙이라는 재료는 지성도 없고 경건함도 없었지만, 이들 인디헤나 여인들을 창조적인 도공으로 키워준 훌륭한 소재였음에는 틀림없다.

과거와 역사가 현존하는 곳, 오늘의 이 색깔들은 어떻게 간직될 것인가

치아빠스는 과거와 역사가 현존하는 곳이다. 마야인들의 후손들이 현대문명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간다. 다양한 색깔로 존재하는 이들의 관습과 문화 속에서 나는 인디헤나 문화가 발달해 온 과정과 근원, 이들이 타 문화와 접촉하며 충돌했던 혼합주의적인 역사, 고대 원주민들의 정신세계와 세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과거는 위태롭다. 치아빠스는 신비로운 우화와 전설 속에 풍요로운 문화가 생산되는 신비로운 땅이기도 하지만, 점차 생존의 터를 잃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팽팽한 긴장의 도시이기도 하다. 이제 멕시코 사회는 고민한다. 색동앵무새 과카마야에게 온통 색깔을 입혔던 신들의 뒤편처럼,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와 역사가 뽑아내는 이 색깔들을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 현재라는 시간대 속에서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하는 인디헤나들의 이 색깔과 생각들은 언제까지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

사진 박정훈 한겨레21 멕시코 통신원